

大學의 갈 길을 묻는다(下)

鄭 範 謨

(翰林大 總長)

여기서 필자는 주로 지난 30여 년간에 쌓인 병폐들을 분석하여 그것에서의 과감한 탈피를 호소하고, 새로운 飛躍을 위한 몇 가지 구상을 시도하면서, 한국 大學의 方向에 관한 대학인과 정부의 성찰과 결의를 촉구하고 각기 교수의 입장, 학생의 견지, 행정직원의 시각에서 아니라 한국 대학에 있어야 할 모습을 염려하는 제 3자의 관점에서 숙의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飛躍

긴 세월에 쌓인 이러한 폐해들을 청산하고 기본적인 紀綱을 회복한 다음에야 우리는 어디로 가려든 간에 내일의 大學進路를 뜻있게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강이 허약해서는 대학의 方向을 논하는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 미래의 구상에서 우리는 우선 기존의 대학체제의 여러 상투적 관행에 의문을 던져 보고 좀 엉뚱한 생각도 해보는 '奇想'들이 필요한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 제안들은 지금 으로서는 이런 '기상'들에 가깝다. 당장 그렇게 하자는 제안이라기보다는 그런 方向으로 가자는 투시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기이하다 해도 실은 세계의 대학 어디에선가는 실행되고 있는 일들이다. 그런 언뜻 보기에는 엉뚱한 생각들 중에

혹 타당한 方向을 가리키는 것이 있어서 그 편린이라도 실제에 반영할 수 있다면 그것은 대학 교육 진일보의 한 비약을 의미할 것이다.

'無學科'의 大學

현재와 같이 학생들이 폐쇄적으로 속하게 되는 學科組織이 꼭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도리어 학생은 학과 소속없이 또는 편의상 소속은 있어도, 강의만은 아무 학과 과목이나 자유롭게 선택해서 이수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 專攻이 결정되게 하는 것이 더 대학답지 않을까? 이럴 경우 '학과'는 강의의 계획과 제공을 위한 '授業學科'일 뿐이고 학생을 거기에 소속시켜 '구속'하는 '學生學科'가 되지 않는다.

기실 '학과'의 區分은 다분히 임의적, 인위적인 것이고 지금의 구분이 학문발전의 추세가 뒤

떨어진 19세기, 20세기적인 구분일 수도 있으며, 미래의 많은 의미있는 문제들은 도리어 學問間的 또는 學際的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다. 또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創意性은 개방된 다양성에서 조성된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학과 선택’을 잘못했다고 호소하고, 많은 학생들이 넓게 공부하기를 원하며, 많은 학생들이 副專攻, 複數專攻 이수를 원하고 있다. 그래서 한때 系別 入學의 시도도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필요가 慣習과 行政 편의주의와 ‘학과 이기주의’로 말미암아 묵살되고 있는 셈이다.

‘無學科’의 철학은 여러 단계로 구체화할 수 있다. 첫째는 지금과 같이 學科를 유지하고 학과별 定員으로 입학시키되, 專攻 必要學點이나 필수과목은 대폭 줄이고, 自由選擇 과목의 범위를 훨씬 넓히며, 轉科의 기회도 넓히고, 副專攻과 複數專攻制를 실질적으로 넓게 가능하게 하는 방향이다. 이것은 지금도 약간만 조절하면 가능한 일이다. 둘째는 학생을 ‘학부’별, ‘계열’별로 입학시켜 소속하게 하고 졸업시키되, 각 계열 속에서는 소속 ‘학과’는 없고 과목이수는 全校에 걸쳐 자유화하며, 다만 이수과목의 종류와 수에 따라 전공, 부전공, 복수전공이 결정되게 하는 방향이다. 이것도 소규모로 실험실시를 하지 못할 방안은 아니다. 물론 이 때 학생은 미리 어떤 전공을 하겠다고 작정하고 입학할 수 있다. 그러나 과다한 전공이수 압력과 속박적인 과소속 압력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 셋째는 같은 무학과 상황을 대학 全校에 확대하는 방향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꽤 혁명적인 방안이지만, 외국에서는 그렇지도 않다.

무학과 철학이 강한 시대적 필요이고 동시에 절실한 학생의 욕구라는 것은 부인할 도리가 없다. 다만 具體化에는 무엇보다도 교수들의 ‘학생을 자기 학문에 묶어 두려는’ ‘學科愛着’ 또는 ‘학과 이기주의’가 제일 큰 걸림돌인 것도 부인할 도리가 없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약간의 용기있는 自由市場, 自由競爭의 철학인 것 같다. 예컨대 ‘심리학’이라면 그저 정책적, 정치적으로 따낸 일정한 학생 정원에 학생들을 묶어 두는 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이 얼마나 사람과 사회에 필요하고 쓸모있

고 재미있고 또 그 학문을 이 대학에서 얼마나 재미있게 잘 가르치고 있는지를 ‘선전’하고 또 그렇게 實質化하는 노력을 말한다. 어차피 세계의 대학들은 치열한 國際競爭 상태에 돌입했다. 한국 학생도 한국의 대학들이 시시하다면 기회가 닿는 대로 점점 더 많이 외국 대학에 가게 되어 있다. 國內의 대학들도 대학 진학 지망생 감각의 추세 속에서 서로 경쟁 상태에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한 대학 내에서의 학과들의 ‘경쟁’도 대학 생존이라는 견지에서는 필요하고 필연 일지도 모르며 그것이 대학의 活力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대학 교수의 ‘학과애착’은 그런 도전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應戰의 자세로 승화되어야 할 것이다.

全人的 銓衡에 의한 入學生 선발

한국의 대학들은 그 입학생 전형에서 심한 경직성에 빠져 있다. 종래의 주로 단편적 知識을 재는 객관식 필답고사의 단순 畧算된 點數에 의해서만 입학생을 선발하는 거의 迷信이나 盲信에 가까운 전형방법은 언젠가는 결단성있게 지양해야 한다. 과감하게 지식 아닌 知力과, 나아가 지도력이나 봉사성 등 情의 그리고 意의인 人性特性을, 점수 수치로서만은 아니라 주관적이고 質的 판단을 포함하는, 다양한 평가방법을 동원하는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 그것이 잔인하고 무의미한 입시준비교육에 신음하는 한국의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教育的 妥當度의 길을 더 줄 것이며, 동시에 정말 대학 修學에 적합한 인재를 뽑는 豫言的 妥當度의 길도 열어 줄 것이다. 지금대로는 각급학교 교육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대학수학의 適材도 뽑지 못하고 있다.

긴 세월의 정부 개입과 여러 가지 不正 사건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대학입시 제도는 아주 심한 경화증에 걸려 있다. 우리는 우선 客觀式的 필답고사가 많은 쓸모가 있으면서도 그 편파된 내용은 非教育的이고, 더구나 그 ‘객관성’이 실은 불가피하게 主觀的 판단 위에 가장된 사ibi 객관성임을 알고 있다. 같은 과목, 같은 내용의 객관적 고사도 누가 어디에서 문제를 내느냐, 어떻게 문항을 만드느냐, 어떻게 채점하느냐에 따라 점수가 달리 나온다. 객관식 고사의 근본은 주

관적이다.

우리는 객관식고사의 점수도 채점상으로 정확해 보여도 실은 반드시 이른바 넓은 범위의 '測定の誤差'의 꼬리를 달고 다니는 수치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오차는 물건의 길이를 cm로 재는 경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흐리멍덩하게 넓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컨대 150점이 실은 120인지, 170인지 알 수 없는 '미덥지 않은', '信賴度'가 낮은 수치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160점이 159, 155보다 확실하게 上位能力을 나타내고 있다는 판단은 도리어 넌센스라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국민학교 일학년에서 10cm와 15g과 20초를 더하기 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국어 10, 수학 15, 영어 20을 합산해서 태연히 45 '점'이라고 부르며 또 49점은 그보다 '크다'고 태연하게 말한다.

우리는 사람에게 그리고 大學에 공부하러 들어오는 학생에게도 잡된 지식만 아니라 創意力, 思慮, 도의심, 지도력, 봉사성 등의 성격특성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이 필답고사라는 방법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이른바 主觀的 평가 방법도 장치 여하에 따라서는, 올림픽 체조 경기 체점처럼 높은 객관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似而非 과학적인 객관식 편집, 필답고사 위주, 점수 맹신, 합산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것이 도리어 '과학적'이며, 교육적이고 예언적인 입학전형방법의 길을 열 것이다. 신랑감이나 신부감을 고르는 데에 객관식 고사와 수치 합산으로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치는 대학 입시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이런 대학 입학전형방법의 창의적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그것이 '완전히' 대학에 위임되어야 하며, 교육부는 지원과 감독의 책임만 맡아야 한다.

소수, 정예의 열린 敎科課程

한국 대학의 교과과정은,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일반적으로 파다한 科目의 나열과 그 履修에서의 폐쇄성으로 특징지어진다. 우선 한 學科에서 학부학생을 위한 敎科科目이 대개 90학점, 100학점 때로는 그 이상으로 너무 많다. 그 배

경에는 규정상 전공 과정 소요 학점은 60학점인데 실질적으로는 '자기 科' 학생에게 그 이상의 전공과목을 이수케 하고 다른 학과 과목을 들을 기회를 주지 않으려는 폐쇄적인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 소요 60학점 그리고 그 이상의 전공과목들도 다 자기 科에서 제공해야 한다는 폐쇄적인 전제도 있다. 거기에 必須科目의 過多는 이런 '학과 폐쇄성'을 더 짙게 한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본래 綜合大學校의 妙는 학생이 이 학과, 저 학과에서 수강할 수 있고, 이수하는 全課程 그리고 '전공과정'도 한 학과에서의 수강으로서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개방된 학과에서의 수강으로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예컨대 '심리학'과라면 소요 전공과목 60학점을 그 중 40학점은 심리학과 과목으로, 20학점은 타학과 과목의 수강으로 '전공과정'의 소요를 채울 수도 있다. 졸업 소요학점 140학점 중 전공과정 60학점과 교양과정 약 40학점의 나머지 40학점은 전공과목이 아니라 副專攻, 複數專攻 또는 완전 자유 선택으로 이수할 수도 있어야 한다. 이런 넓은 공부가 현대의 學問界가 대학에 요구하는 바이고, 就業의 기회도 넓히며, 학생들의 知的 호기심도 충족시켜 주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한다면 이론적으로 심리학과에서는, 극단적으로 말해서, 잘 계획된 精銳科目으로 40학점만 또는 거기에 약간 선택의 여유를 둔다면 60학점분만 設講해도 된다는 말이 된다. 그래야 학생들이 '종합대학답게' 개방적으로 넓게 타 학과 강의들을 들을 수 있다.

각 학과는 專攻課程 소요 학점수는 현행대로 60학점으로 하되, 전공의 필수 및 선택과목을 모두 '자기' 학과 과목으로 충당할 필요는 없다. 도리어 넓게 他科와 합치해서 타과 과목 중에서 적절한 것은 '자기' 전공과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권장되어야 한다. 대학의 각 학과는 '자기' 학과 학생을 '자기' 학과 과목이수에 '매 두지 말아야' 한다. 도리어 最小必須 이외에는 적극 他科 과목 수강을 권장해야 한다. 또 '남의 과' 학생의 '내과' 과목 수강도 적극 受容해야 한다. 각 학과는 현재 90~100학점 設講科目 수를 70~80학점 정도로 대폭 줄여야 한다. 醫科, 法科 등 '職業性'이 강한 학과나 대학은 그 예외일 수는 있

어도, 대부분의 ‘人文 및 科學’의 학과는 이 원칙을 지킬 수 있다. 이 원칙에서는 교수의 책임 교수시간도 축소될 수 있다. 각 학과는 必須科目의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 현행 20~28학점 수준에서 과감하게 12~15학점 정도로 축소할 만하다. 필수과목 지정에서 실은 학생을 메두려는 專門 이기주의가 작용하고 있을 때가 많다.

이 모두는 결국 학생들이 전공은 이수하면서도 넓게 스스로의 취향에 맞게 自由履修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이런 제안에서 필수적으로 부수되어야 하는 것은 그 ‘자유이수’가 방임이 아니라 教授의 개별적인 學事(登錄)指導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엄격히 이수규정만 해놓고 학과 등록을 방임하는 대신, 교수가 학생의 수강 계획에 개별적으로 助言해 주는 것을 말한다.

지금 학과들이 ‘자기 학생’을 꼼짝달싹 못하게 너무 ‘자기 학과’에 얽매어 두고 있는 것은 극단으로 말해서 시대착오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의 과목들은 소수, 정예로 구성하고 학생은 개방되게, 따라서 다양하게 이수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教授體制 — 講義와 現實感覺

대학에서 과목의 이수를 “강의 듣는다.”고 말할 정도로, 자연계에서의 몇몇 실험을 제외하고는, 대학의 수업에서는 ‘강의’라는 방법이 압도적이다. 그리고 그 타성의 힘은 대단히 강해서 여간해서는 다른 수업 방법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러나 정말 강의가 뜻있고 재미있고 쓸모있으려면, 그것은 반드시 어떤 현실적, 실질적, 실행적인 경험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려면 수업방법, 강의운영 방법에 과감하게 現實感覺을 도입해야 한다. 그런 현실 감각이 학습 장면에 自我를 깊이 관여하게 할 수 있는 첨경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教材 속에 현실적, 실제적, 실용적 문제를 다루는 일; 실험, 실습, 실연, 演習의 기회를 늘리는 일; 현장을 방문, 관찰, 조사하는 일; 실감적인 시청각 교재를 활용하는 일 등을 포함한다. 물론 이런 ‘현실적’인 경험들이 學業이 되려면 반드시 知的으로 ‘여과’되어야 한다. 이런 일은 노력만 한다면 거의 모든 학과, 모든

과목에서 가능하다. 그러려는 노력이 필요할 뿐이다. 그것은 훨씬 生動感있는 대학 학구생활을 가능케 할 것이다. 좀 통속적인 심리적 관찰이기는 하지만, ‘들은’ 것은 20% 기억하고, ‘듣고-본’ 것은 50%를, ‘듣고-보고-해 본’ 것은 80%를 기억한다는 관찰은 대략 맞는 것이다.

이런 생동감있는 教授體制의 개발과 실행은 강의식보다 훨씬 힘들다. 그러나 교수의 그런 教授開發 노력은 교수의 研究開發 업적에 못지않게 귀중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대학에 특히 ‘소그룹 세미나’의 중요성은 세심 재인식되어야 마땅하다. 자연과학의 경우도 그렇고 더구나 인문·사회과학에서는 독서나 조사, 관찰 후에 소그룹에서 對話, 協議, 討議하는 것 자체가 일방적인 강의보다는 훨씬 현실감을 갖게 하는 교육방법이다. 그 세미나의 主題가 현실사회의 문제에서 취재된 것이면 현실감각은 더 짙어진다. 대학 강의의 약 50%가 그런 ‘소그룹 세미나’의 방법으로 진행된다면 대학은 훨씬 더 생생한 學習場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각 학과에서 正課 이외로 이 때 저 때 小題目으로 교수-학생이 자주 세미나를 갖는 것은 學生指導上으로도 최상의 방법이다.

教授研究에의 學生參與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19세기 독일 훔볼트가 교육과 동시에 研究의 기능을 대학의 二大支柱로 삼은 이유는 대학이 연구를 생산하는 그 자체가 중요해서라기보다는 ‘연구참여가 최선의 교육방법이고 학습방법’이라는 신조 때문이었다. 즉, 스승 대장장이와 도제 대장장이가 달군 쇠를 같이 두드리면서 명점을 만들어 내듯이 교수의 연구수행에 학생이 직접 참여하게 하는 것이 교수에게는 최상의 교육방법이고, 학생에게는 최선의 학습방법이라는 생각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교수가 연구 프로젝트를 따서 학생의 참여 없이 혼자 수행하는 연구는 대학의 본래 사명으로 보아서 도리어 外道라고 해야 한다. 그런 연구는 대학 아닌 연구소, 교수 아닌 학자에 의해서도 수행될 수 있다. 대학 내에서 교수에 의해 수행되는 연구에는 어떤 모양으로든 어떤 학생들이라도 꼭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거나 필수로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아니면 그 연구는 '대학'에 들어 올 자격이 없다. 대학에서의 연구는 거기에 학생을 참여시켜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 점에서 대학의 '研究費政策'은 크게 재지향되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대학 연구비의 財源을 늘리고 연구활동을 왕성하게 하느냐는 그 자체가 따로 숙의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작은 연구재원이거나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하느냐도 큰 문제다. 우리나라 대학 研究費의 역사는 좀 불행했다. 문교부의 학술연구조성비는 처음부터 그 研究費政策이 조금 빛나갔다. 그것이 '연구 우대'보다는 '교수 우대'책의 일환인 성격을 띠고 시작했기 때문이다. 우선 연구비가 '순'연구비가 아닌 일부 교수의 生計補助費로 간주되고, 둘째로 소속 대학에는 아무 관계가 없고 아무 혜택도 돌리지 않으며, 교수 개인 計厓로 마음대로 사용해도 괜찮게 마련되었다.

보다 성숙된 그리고 효과적인 研究費 운영을 위해서 이런 상황은 외국의 경우처럼 점차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시정되어야 한다. 연구비는 순 연구비로 사용하고, 교수 개인이 아닌 대학 경리로 관리하며, 대학이 연구비에 일정한 '오버헤드', 연구간접비를 없어서 회수하는 방향을 말한다. 무엇보다도 연구비의 대부분 또는 중요한 부분은 그것으로 학부나 대학원 學生을 研究助敎로 참여하게 할 수 있는 비용으로 반드시 계상되어야 한다. 그래야 대학의 연구, 대학교수의 연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의 연구 참여'라면 대개 연구 조교로서의 대학원 학생을 생각한다. 대학원 학생에게는 물론 그런 연구참여 경험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학부의 1, 2, 3, 4년 학생들도 적절한 모양, 적절한 역할로 교수의 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 물론 그때 학생들의 실수와 미숙은 각오해야 한다. 그것은 교정학습의 기회이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적절한' 실수다. 이런 연구참여를 통해서 학생은 [교수의 問題接近方式과 思考方式에 접하고, 研究의 스타일 나아가 生活哲學까지도 배우게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個別指導, 人間指導, '師弟'形成의 기회가 된다.

풍부한 文化 센터

한국의 대학환경은 일반적으로 학수와 연구 등 學究의 場으로서도 빈약하지만, 다양한 文化活動의 場으로서도 너무 을씨년스럽다. 풍족한 학구환경은 돈이 없어서 마련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풍부한 문화환경의 조성은 아예 대학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관행마저 엿보인다.

물론 대학의 중추 사명은 學究에 있다. 그러나 학생은 매일, 매주 한 시간의 예외 없이 공부만 해야 하는 존재는 아니다. 학생들이 예술, 스포츠, 봉사 등 풍부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는 그 자체가 全人的 존재로서 그들의 필요한 동시에 학구생활에도 크게 補充的으로 상호 작용한다. 실은 예술과 문학과 철학의 차이도 종이 한 장이고, 예술적 창의성과 과학적 창의력도 실은 서로 중의의 앞뒤와 같으며, 스포츠로 풀고 굳히고 한 心身이 학구생활의 든든한 바탕이 될 것이라는 것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풍부한 문화활동의 기회는 學生活動을 '文化化'하고 거기에 방향과 에너지와 기회를 공할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풍부한 문화활동은 대학생에게 넓은 의미에서의 敎養敎育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한다.

원하기만 하면 언제나 그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적절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수영장, 헬스시설, 테니스, 라켓 볼, 배구, 농구, 축구, 행글라이더, 서핑 등 스포츠의 기회; 공예, 드라마, 마임, 무용 등 예술활동의 기회; 노인, 병자, 불구자, 탁아, 교아, 농촌, 공장 등 각종 사회 봉사활동의 기회, 그리고 이를 위한 시설, 프로그램 개발, 최소한의 지원 등은 결코 대학 사명 밖의 일은 아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과 프로그램은 음악회에 고장 사람들을 초청하고 수영장에서 체육학과 학생이 고장의 아이들을 지도한다든지 하는 형식으로 적절하게 地域社會에 봉사하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폭넓은 문화활동에는 여러 社會問題에 대한 關心의 추구가 포함된다. 사회문제 중 종래 학생운동의 주된 관심사는 政治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에 대한 관심도 다양화해야 한다. 예컨대 앞에서도 예를 들었듯이 生態系 파괴, 환경 오염, 消費者 보호, 나아가 국제적인 전쟁 빈

발, 기근 사태 또는 '정보전쟁', 지역주의 등 내일을 걱정하는 학생들이 좀 더 시야를 넓혀서 관심을 가지고 추구할 만한 문제들은 많고 다양하다.

競爭 속의 自營力

미국 MIT의 경우, 그 年間豫算의 약 60%가 교수들의 외부 受託研究費로 충당되고 학생 등록금 수입은 약 25%만을 차지한다고 한다. 다른 어떤 州立大學의 경우는 거꾸로 되어 있다. MIT의 경우는 교수들이 치열한 경쟁적인 研究費 '市場'에 뛰어 들어서 직접 대학 財源의 중요한 創出者가 되어 있는 셈이다.

물론 미국과 우리의 연구비 '사정'은 사정이 다르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 얻을 수 있는 '生存'을 위한 교훈은 이제 대학인들도 自由競爭 속에서 自營能力 여하에 따라 浮沈하는 企業體와 비슷하게, 스스로를 財源의 受容者로서만 아니라 資源의 적극적인 創出者로서의 역할을 떠맡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기업체'라고 해서 대학이 어떤 영리나 모리를 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런 기업체와 같은 생존을 위한 競爭意識과 自立意識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어차피 대학들은 국제적으로도 전쟁에 가까운 경쟁 상태에 들어가 있고, 국내적으로도 浮沈을 겨루는 경쟁상황이 더 격화되어 있으며, 그것을 이겨내는 길은 한 대학 내에서도 學科間 경쟁을 유도하는 길일지도 모른다.

대학인들이 스스로 創出해야 할 資源은 비단 수탁연구비만은 아니다. 각종 기부금, 장학금도 있다. 또 각종 창의적인 平生教育 프로그램에 의한 제원 개발도 있을 수 있다. 그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구상과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자원'은 이런 財源이기보다는 대학의 '質'이고, 그 質에 따라서만 제원도 담지한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따라서 教育의 열의, 기강, 질 높은 성과, 학생들의 滿足度, 졸업생의 질과 취직률, 대학 또는 학과의 명성과 평판 등의 構築이 가장 궁극적인 자원인 셈이다. 그것에 따라서 대학의 여러 '顧客'이 결정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

대학인들은 언제나 정부, 기업체, 기타 외부

의 財政支援의 빈곤을 탓하며 한탄한다. 당연하다. 한국의 23개 국립대학 예산의 합계가 MIT 연간예산보다 적다. 그러나 한편 우리는 경쟁 속에서 生死를 건 기업체처럼 심각한 自救, 自強, 自營의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도 아울러 저울질해야 할 것이다. 또 지난날이야 어찌됐든 이제는 이런 노력 여하에 따라서 대학도 생존할 수 있을 것이고 외부 지원도 그 정도에 따라 담지할 전망이다.

미국에서는 대학 總長의 가장 큰 책임이 외부의 각종 기부금, 지원금, 연구비를 얻어오는 일이고, 그 책임은 상당한 부분을 學長과 學科長도 나누어 갖는다고 한다. 우리도 이제 그런 단계에 접어들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런 책임은 MIT의 경우처럼 교수 전원이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말도 된다. 교수가 직접 研究費를 수탁해 오는 일도 있어야겠지만 연구비, 기부금, 기타 지원을 받기에 有利한 대내적인 여러 質的 要件을 창출하는 자구, 자강의 노력이 自營, 自生の 조건이 될 것이다.

大學의 '아이덴티티'

한 대학은 독특한 아이덴티티, 正體性 또는 集團精神을 기르고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아마도 우리는 여기에서 대학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도 모른다. 스스로를 '정직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거짓말을 못하고, 스스로를 '지독하게 공부하는 학교'로 생각하고 있으면 그 학교의 교수와 학생은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 '피차가 놀고 먹는 대학'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행동하고 또는 '창의와 다양을 존중하는 대학'이라면 또 그렇게 행동한다.

세계의 여러 대학을 비교한 어떤 논자는 대학의 秀越性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대학의 시설이나 교수-학생 비율과 같은 物量的 指數들이 아니라 스스로를 어떤 대학, 어디로 가는 대학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心理的 指數에 있다고 말했다. 즉, 대학의 한 집단으로서의 正體性 意識이 수월성의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것이다. 한 대학의 아이덴티티는 어떤 누가 그것을 提示한 다기보다는 大學成員들이 다같이 그 아이덴티티를 찾고 기르려는 切磋琢磨의 노력에서만 탄생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노력에 참고할 만한 몇 가지 제안은 가능하다.

첫째, 대학 정체성 추구에서 大學의 모델은 과감히 多樣하게 상정해야 한다. 한국 대학들에 있어서 하나의 비극은 거의 모든 대학의 모델이 '서울대학교'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서울대가 文理大를 人文, 社會, 自然 세 대학으로 나눴다고 그것이 반드시 금과옥조는 아닌데도, 거의 모두 그 모델을 따랐다. 입학전형, 교과과정 운영에서도 마찬가지다. 거기에는 그동안 정부의 획일적인 大學教育政策의 탓도 컸겠으나, 대학인들의 安易한 思考의 탓도 없지 않다.

이제 그 한 모델단은 아닌 좀 엉뚱한 교육 철학, 엉뚱한 목적, 엉뚱한 조직, 교육과정, 교육방법, 평가방법들을 想定하면서 그 속에서 각기 주어진 환경여건, 학생의 여건에 적합한 모델을 찾아야 할 때도 되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논의도 그런 몇 가지 모델의 제시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무학과 대학, 전인평가에 의한 입학전형 등은 그런 몇 가지 엉뚱한 생각인 셈이다. "학자 후보가 아니라 약간의 전문성을 지닌 넓은 敎養人을 기르겠다." "교육과정을 아예 교양과정, 전공과정, 就業과정으로 조직해 보자." 등의 주장도 그 예로 보낼 수 있다.

둘째, 현대의 大學은 多機能의이라는 사실을 직면하면서 그 속에 한 대학은 스스로의 아이덴티티를 찾아야 한다. 한 대학이 야심적으로 많은 기능을 떠맡을 수 있고, 여러 대학들이 '分化'해서 서로 다른 기능에 치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학에는 學部도 있고 大學院도 있다. 대학에는 교육 기능도 있고 연구 기능도 있고 봉사 기능도 있다. 대학에는 인문계, 자연계, 사회계, 기술계, 예능계의 여러 학과, 여러 단과 대학이 있을 수 있다. 대학에는 그 명성 때문에 知的 정수분자들이 가는 대학도 있고, 그보다는 중급, 하급의 학생들이 가는 대학도 있다.

여간 야심적이고 자원이 풍부하지 않고서는 이 모든 다량의 수요와 기능을 한 대학이 모두 떠

맡을 수는 없다. 어찌 보면 한국 대학들의 문제의 하나는 모든 대학들이 제각기 모든 기능을 전부 떠맡으려고 해온 데에 있다. 도리어 分化的으로 特性化하는 것이, 다른 이점도 있지만, 특히 대학 正體性 추구에 유리할 것이다. 대학원은 잇고 학부에만 정열을 쏟을 수도 있다. 교육과 연구를 양립시킨다 해도 우선 중점은 교육에 둘 수도 있다. '종합' 대학이라는 이름에 홀려 모든 단과대학과 학과의 구색을 모두 맞추려 할 필요도 없다. 굳이 지적 엘리트가 아니라도 지적 '중산층'의 대학이 설자리도 얼마든지 있다. 대학 年齡層 학생만 아니라 쉰 연령층의 平生教育을 중점으로 삼을 수도 있다. ... 명백히 우리는 모든 '토끼'를 다 쫓아 갈 수는 없다. 대학의 정체성 추구에는 도리어 어떤 重點機能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대학 정체성 추구에서는 불가불 未來社會에 대한 어떤 전망이 있어야 한다. 그런 전망의 전부에는 아니더라도 그 일부에는 對應하는 정체성 추구가 있음직하다. 미래가 점점 심각하게 國際化된다는 전망에서는 남다른 '국제화'의 노력에서 아이덴티티를 찾을 수도 있고, 미래가 무엇보다도 創意力에 달려있다면 남다르게 '창의의 정신'을 기치로 할 수도 있다. 미래가 점점 더 人間的 感受性을 요구하는 人間化가 관심이 되어가는 사회라고 내다 본다면, 남다르게 '인간화'의 프로그램을 학교의 특색이 될 정도로 강조할 수도 있다. 미래에는 平生教育의 필요가 점점 급속히 커진다는 전망에서 대학은 지금부터 그 준비를 서두를 수도 있다. 물론 우리는, 여간 잘 조정된 프로그램이 아니고서는, 이 점에서 모든 '토끼'를 쫓아갈 수는 없다. 그러나 어떤 하나에 중추적 아이덴티티를 잡고 거기에 몇 전망을 통합할 수는 있을 것이다.

대학에는 '내로라' 할 수 있는 어떤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대학의 進取的 집단 정신, '에스프리 드 코'를 형성한다.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한다. ■